

中國現代 韓人題材小說의 發展趨勢 및 反映된 韓人の 文化的 處境考 (1917~1949)*

朴 宰 雨**

一. 問題提起

중국현대문학이나 소설의 개론서중에는 전문적으로 인물형상의 여러 유형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각 계층별 인물형상으로 나누어 기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아무리 뒤져봐도 중국현대문학 속에 나타난 우리 한인들의 인물형상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한 서적이나 편장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구한말부터 해외, 특히 만주로 이주하거나 중국내지로 망명한 우리 선인들이 어려운 조건속에서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갔고 어떻게 활동하였으며, 나아가 항일민족운동에서의 역할은 어떠하였는가 등의 문제가 국사학자의 연구대상일 수 있다면 그들의 삶과 투쟁이 중국현대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현대문학을 연구하는 우리의 관심사이자 연구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중국인 학자들에 의해 관심밖의 문제로 내던져져 있는 상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황에서라.

기실 우리에게도 郭沫若의 《牧羊哀話》나 蔣光慈의 《鳴綠江上》, 舒群의 《沒有祖國的孩子》등 韓人들을 제재로 한 몇몇 소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牧羊哀話>는 1932년 우리나라 중국현대문학번역의 선구자격인 梁白華에 의해 <금강산애화>란 이름으로 번역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선 총체적인 자료 파악과 정리가 시도된 바가 없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필자는 다년간 간헐적인 탐문과 조사와 수집 끝에 일차적인 자료정리와 함께 분석을 시도할 수 있었고, 지난 8월 일차 구두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조만간 곧 정리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통시적으로 보아 근대이래 현재까지 중국문학속에 반영된 한인 형상에 대해 중국 작가들의 의도와 시각, 반영의 폭과 깊이, 분량, 의미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단계, 1894년~1918년; 제2단계, 1919년~1949년; 제3단계, 1949년~1988년; 제4단계, 1988년~현재까지.

제1단계는 청일전쟁때부터 5·4운동 전야까지로 주로 청일전쟁과 조선의 운명을 반영한 시문과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고, 제2단계는 5·4운동시기부터 신중국 성립전까지로 이민은 농민들의 고난에 찬 삶이나 한국인의 항일민족운동의 모습을 담은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제3단계는 신중국 성립시기부터 남한과의 교류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참전을 제재로 하거나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반영한 소설, 르포문학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제4단계는 남한과 교류를 재개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일단은 여행기나 산문 작품이 주로 나오고 있는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제시기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아 일단 제2시기를 대상으로 삼아 지난 번의 정리와 1차 분석(<中國現代小說中の 韓人形象 深索>)을 토대로 하여 한인제재소설을 새로이 시기별 유파별로 정리해보고, 소설유파적 각도에서 韓人題材小說의 발전 추세와 그 문학적 성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韓人題材小說속에 반영된 韓人들의 文化的 處境에 대해 알아 볼까 한다.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최초의 시도인지라 탐색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二. 韓人題材小說의 時期別 流派別 創作狀況

중국현대소설중 韓人(高麗人, 朝鮮人)이 주요인물로 등장하거나 주요인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형상이 선명히 부각되어 있거나 일정한 편폭으로 韓人들의 삶을 반영해낸 소설을 넓은 의미에서 韓人題材小說이라 할 때, 이 韓人題材小說은 작품수로 볼 때 그다지 많지 못하다고 하겠다. 필자가 현재(1996년말)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가수 9명에 작품수 26편에 이른다. 물론 이는 완벽한 통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비교적 주요한 작품들은 대개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작품화되어 있는 상황은 꽤 다양하다.

우선 중국에서의 분기방식인 첫 번째 10년, 두 번째 10년, 세 번째 10년의 분기방식에 따르면 이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첫 번째 10년(1917.1~1927.3) 5·4문학운동기 및 그 발전기
 - (1) 郭沫若의 <牧羊哀話>(단편 1919.11.15. 『新中國』 1卷7期)

(2) 蔣光慈의 <鴨綠江上>(단편 1926.2.14. 『鴨綠江上』 亞東圖書館 단편집)

2. 두 번째 10년(1927.4~1937.6) 좌익문학혁명운동기

(1) 李輝英의 <萬寶山>(장편 1933.3. 上海湖風書局 단행본)

(2) 蕭軍의 <八月的鄉村>(장편 1935.8. 上海奴隸社 단행본)

(3) 舒群의 <沒有祖國的孩子>(단편 1936.5.1 『文學』 6卷5號)

(4) 巴金의 <髮的故事>(단편 1936.5.15 『작가』 1卷2號)

(5) 戴平萬의 <滿洲瑣記>(단편 1936.6.10. 『光明』 創刊號)

(6) 李輝英의 <古城裏的平常事件>(단편 1936.9.1. 『文學』 7卷3號)

(7) 舒群의 <隣家>(단편 1936.9. 『沒有祖國的孩子』 上海生活書店 단편집)

(8) 李輝英의 <夏夜>(단편 1937.6.10. 『光明』 3卷1號)

3. 세 번째 10년(1937.7~1949.9) 항일문학운동 및 노농병문학운동기

(1) 李輝英의 <新計劃>(단편 1937.10.1. 『文學』 8卷4號)

(2) 舒群의 <海的彼岸>(단편 1940.9. 『海的彼岸』 重慶烽火社 단편집)

(3) 巴金의 <火> 第一部 (장편 1940.12. 上海文化生活出版社 단행본)

(4) 駱賓基의 <邊陲線上>(장편 1939.11. 上海文化生活出版社 단행본)

(5) 駱賓基의 <混沌(幼年)>(장편 1944 桂林三戶書店 단행본)

(6) 卜乃夫의 <北極風情畫>(장편 1944 上海無名書屋 단행본)

(7) 卜乃夫의 <野獸野獸野獸>(장편 1944 上海時代生活出版社 단행본)

(8) 駱賓基의 <莊戶人家的孩子>(단편 1945.9.15 『文藝雜誌』 第1卷3期)

(9) 卜乃夫의 <金色的蛇夜>上(장편 1947 上海眞善美圖書出版公司 단행본)

(10) 卜乃夫의 <騎士的哀怨>(단편 1947 『露西亞之戀』 (上海眞善美圖書出版公司 단편집)

(11) 卜乃夫의 <露西亞之戀>(단편 1947 『露西亞之戀』 (上海眞善美圖書出版公司 단편집)

(12) 卜乃夫의 <伽倻>(단편 1947 『龍窟』 (上海眞善美圖書出版公司 단편집)

(13) 卜乃夫의 <狩>(단편 1947 『龍窟』 (上海眞善美圖書出版公司 단편집)

- (14) 卜乃夫의 <奔流>(단편 1947 『龍窟』(上海眞善美圖書出版公司 단편집))
- (15) 卜乃夫의 <紅魔>(단편 1947 『龍窟』(上海眞善美圖書出版公司 단편집))
- (16) 卜乃夫의 <龍窟>(단편 1947 『龍窟』(上海眞善美圖書出版公司 단편집))

첫 번째 10년에는 두 작가의 작품 총 2편이 나왔고, 두 번째 10년에는 다섯 작가의 작품 총 8편이 나왔으며, 세 번째 10년에는 다섯 작가의 작품 총 16편이 나왔으니 갈수록 더 많은 작품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적인 분석만 가지고 내면적인 발전추세를 파악하기는 불충분할 것이다.

기실 이들 작품의 필치와 풍격, 내용과 주제의식을 살펴보면, 많은 다양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 작품과 이를 쓴 작가들이 휩싸여 있던 사조 혹은 유파를 통해 그 작품들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한인제재 소설들의 발전추세를 더욱 잘 구명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嚴家炎교수의 《中國現代小說流派史》에 의하면 현대(1917~1949) 중국 소설의 유파로 ‘향토소설파’, ‘자아소설파’, ‘혁명소설파’, ‘심리분석파’, ‘사회분석파’, ‘京派’, ‘칠월파’, ‘후기낭만파’ 등 8개를 들고 있고, 準流派로 ‘東北作家群’을, 형성과정중에 있으면서 雛形을 갖춘 유파로 ‘山藥蛋派’와 ‘荷花淀派’를 거론하고 있다. 賀玲의 《中國現代流派概觀》은 위의 정식 유파 8가지중 ‘후기낭만파’를 제하는 대신 ‘鴛鴦胡蝶派’와 ‘문제소설파’를 추가하고 ‘동북작가군’과 ‘산약단파’, ‘하화정파’를 정식 유파로 간주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한 위에 郭沫若 소설 《牧羊哀話》가 낭만주의 성향 속의 습작 소설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戴平萬이 좌련작가로 만주에 파견나

가 항일활동을 했다는 면에서 동북작가군과 궈를 같이 하는 작품을 썼다는 점을 참작하며, 파금의 한인제재소설이 그의 무정부주의 성향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의 작품들은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초기 낭만주의 유파 성향 습작 소설

(1) 郭沫若의 <牧羊哀話>(1919. 11. 15.)

2. 혁명문학과 소설

(1) 蔣光慈의 <鳴綠江上>(1926. 2. 14.)

3. 동북작가군 소설

(1) 李輝英의 <萬寶山>(1933. 3), <古城裏的平常事件>(1936. 9. 1), <夏夜>(1937. 6. 10), <新計劃>(1937. 10. 1)

(2) 蕭軍의 <八月的鄉村>(1935. 8)

(3) 舒群의 <沒有祖國的孩子>(1936. 5. 1), <隣家>(1936.9), <海的彼岸>(1940. 9)

(4) 戴平萬의 <滿洲瑣記>(1936. 6. 10)

(5) 駱賓基의 <邊疆線上>(1939. 11), <混沌(幼年)>(1944), <莊戶人家的孩子>(1945. 9. 15)

4. 무정부주의 성향 소설

(1) 巴金의 <髮的故事>(1936.5. 15), <火> 第一部(1940. 12)

5. 후기낭만파 소설

(1) 卜乃夫的 <北極風情畫>(1944), <野獸野獸野獸>(1944), <金色的蛇夜>上(1947), <騎士的哀怨>(1947), <露西亞之戀>(1947), <伽倻>(1947), <狩>(1947), <奔流>(1947), <紅魔>(1947), <龍窟>(1947)

三. 韓人題材小說의 流派別 發展趨勢와 文學的 成就

아래에서는 먼저 위의 각 그룹별 작가 작품들의 내용과 주제 의식, 특성, 문학성취 등을 일일이 살펴보고, 나아가 발전추세에 대해 귀납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초기 낭만주의 유파 성향 습작 소설에는 郭沫若의 <牧羊哀話> (1919.11.15.)가 속한다.

郭沫若이 22세 때인 1913년 12월 28일 한반도를 일주일 정도 거쳐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 때 금강산을 유람하였고, 동시에 식민지 조선의 황량한 모습을 보게 되고 특히 배속에서 일인이 중국인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반일감정이 생겼다고 한다. 이것이 나중에 「牧羊哀話」를 쓰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이 소설은 한일합방 전 임금에게 그것을 반대하는 상소를 하다가 수용되지 않자 金剛山 靜安寺에 와서 은거한 조선귀족 閔崇華와 딸 閔佩蕙, 그리고 민씨댁의 府中 司書인 자기 아버지와 민씨 후실 이씨가 내통하여 민씨를 반역자로 몰아 살해하려는 것을 구하고 대신 죽은 尹子英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일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상당 정도 낭만적 필치를 띠고 있어 부분적으로 사람 마음을 울리는 정취가 있지만, 개념적인 묘사와 연극배우식의 대화 등이 습작이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 또한 조선을 무대로 하여 배일의식을 조선인의 마음에 전이시켜 놓는 것이 주제라지만, 그 주제는 정면적으로 부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인공 이름을 짓는데 있어 ‘閔崇華’, ‘閔佩蕙’로 지은 것은 ‘중화를 숭상한다’, ‘오랑캐에 탄복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그대로 작가의 중국 중심적 발상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야말로 초기 한인재재소설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작품이라고 하겠다.

둘째, 혁명문학과 소설로는 蔣光慈의 <鴨綠江上>(1926.2.14.)이 있다.

蔣光慈는 21세때인 1921년 유소기 등과 일본을 거쳐 소련의 모스크바 공산주의 노동대학에 유학갔다가 1924년 귀국한다. 거기에서 세계 약소국가나 식민지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식민지 조선에서 망명온 학생을 접촉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상황을 좀더 잘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鴨綠江上>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후 망국의 치욕을 느끼고 압록강가에 은거한 두 조선 귀족의 아들과 딸로 사랑하는 사이인 李孟漢과 雲姑가 일제의 탄압으로 헤어져 이맹한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망명하고 雲姑는 남아 있다가 사회주의청년동맹 부녀부 서기로서 체포되어 서울 감옥에서 죽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이다. 작가는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집도 망하고 애인과의 헤어지고 끝내 사별해야 하는 조선인의 통한을 빌려 피압박 민족들간의 연대의식과 사회주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양의교수는 이 소설에 대해 “문필이 비장하고 강렬한 가운데 완곡하고 맑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고, 시야가 서울과 모스크바에 미쳐 경계가 비교적 광활하며, 압록강변의 다정한 남녀가 하룻밤 사이에 이별하는 장면을 정감깊고 감동적으로 써내 예술매력이 <少年漂泊者>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嚴家炎教授가 지적한 ‘혁명소설의 약점’을 상당 정도 노정하고 있어, 압록강변에서의 이맹한과 운고의 생활 묘사 부분 등은 현실감이 처지는 느낌을 금할 수 없고 또한 예술수완이 완숙해졌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장광자는 꼭말약을 추송했는 바, 이 소설은 처음의 상황설정과 구도면에서 郭沫若의 <牧羊哀話>의 영향이 엿보이지만, 총체적으로 보아 그보다는 적지 않은 발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째, 동북작가군의 소설이다. 30년대가 되면 중국의 동북지방인

만주에 조선인 이민이 대폭 증가한다. 그리고 1931년 9·18 만주사변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며 韓人들의 위상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고 그에 따라 韓人들은 동북작가군의 소설 속에 많이 등장한다. 한인제재 소설을 쓴 동북작가들로 李輝英, 舒群, 駱賓基를 대표로 거명할 수 있겠지만 그외에 戴平萬과 蕭軍을 들 수 있다.

李輝英의 한인제재소설로는 <萬寶山>(1933.3.), <古城裏的平常事件>(1936.9.1.), <夏夜>(1937.6.10.), <新計劃>(1937.10.1.) 등이 있다. 李輝英은 길림성 출신으로 1927년까지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상해로 옮겨와 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의 고향 근처에 바로 長春과 萬寶山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韓人을 평소 많이 보아온 것이 한인제재소설을 많이 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소설속에 등장하는 高麗人의 모습은 이른바 ‘高麗棒子’들로서 <萬寶山>의 金福부자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부정당한 행업이 종사하거나 일인을 배경으로 중국인에게 사기치거나 횡포부리는 사람들이다. <萬寶山>은 9·18 전야에 중국인과 계약한 조선 농민들이 만보산지구에 이주하여 논농사를 짓기 위해 수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국농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일제가 개입하여 조선농민편을 들어 총을 난사하는 등 일제와 중국의 대립으로 발전된다. 그 과정에서 침략 의도를 강화하는 일제와 그에 부화하는 일부 조선인들 및 중국인 매국노의 음모를 폭로함과 동시에 항일을 향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조선인 金福父子와 각성된 중국학생 李竟平, 그리고 당지의 건강한 농민들과 상호 연대를 통해 일제에 항거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한중 민중간의 충돌을 극복하고 함께 항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지 2년도 안되어 작품화되어 출판된 까닭에 예술적으로 완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古城裏的平常事件>과 <夏夜>, <新計劃>은 일제 세력을 뒤에 깔고 고려인들이 방 빌리는

과정에서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나 흠친 장물을 사들여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인들의 행태, 혹은 일인을 등에 업고 아편과 매음업을 하고자 하는 중국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고려인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당시 중국 일반민중들의 고려인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리얼한 필치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적으로도 상당히 다듬어져 있다.

이와 반대로 舒群의 한인제재소설에는 중국에 와서 고난에 찬 삶을 살면서도 굳굳하게 항일의식을 키워 가거나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인물들의 삶이 주로 반영되고 있다. <沒有祖國的孩子>(1936.5.1.)와 <隣家> (1936.9.), <海的彼岸>(1940.9.) 등이 그것이다. <沒有祖國的孩子>는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데 망국후 중국 변경으로 유랑해와 냉대와 압박속에서 방목일을 하며 어렵게 사는 조선 소년 果里가 중국소년 ‘나(果瓦列夫)’와 소련여교사 蘇多瓦의 호의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국제적 우의로 발전한다. 일제가 그 지방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 果里는 일본인을 죽이고, ‘나’를 감싸며 연대의식을 발휘한다. 항일에 있어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결합을 고취하는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隣家>는 조선 독립당에 종사하는 세 아들이 일경에 의해 체포당해 조선에 압송당하고 몸을 파는 딸의 수입에 의존해 겨우 목숨을 유지하며 살면서도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는 궁색한 조선인 노파의 이야기이고, <海的彼岸>은 조선에서 일본인을 테러하고 모친과 헤어져 중국에 망명과 사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로 모친은 10년후에야 아들의 편지를 받고 상해에 가지만 일경이 따라붙어 깊은 밤에야 잠시동안 만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 현실을 그리고 있다.

한인제재소설을 쓴 동북작가중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駱賓基이다.

駱賓基는 1917년 조선이민이 많이 살고 있는 吉林省 琿春市에서 태어나 유년과 청소년시절을 보내는데 자전체 소설인 <混沌(幼年)>, <莊戶人家的孩子>에 등장하는 조선 소년소녀와 조선인들의 모습은 그가 훈춘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을 묘사한 것이다. <邊陲線上>은 변방 산림지대 마을에서 다양한 성분과 행태의 인민들이 일제의 침략을 맞아 의용군에 투신하고, 이들은 나중에 구국군에 합류하는데, 투쟁을 통해 그 지도부의 잘못된 지도노선을 시정해 가는 劉強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이다. 그 과정에서 朝鮮紅黨과 연합작전을 펴는 바, 곁들여 조선홍당 유격대의 철저하고 완강한 모습을 그려내 연대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混沌>은 낙빈기의 대표작으로 한인 이야기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훈춘지방의 滿·漢·回·韓 4개 민족이 잡거하는 변방지대의 이야기 속에는 韓人들의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莊戶人家的孩子>는 중국지주아이와 조선소작농 딸과의 잔잔한 우정이 동북지방의 자연을 배경으로 함께 농작물을 훔치는 일을 통해 깊어져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황순원의 <소나기>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낙빈기의 작품은 동북작가군 중에서도 구성이 탄탄하고 리얼리즘에 바탕한 소박한 묘사로 예술적 성취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蕭軍의 의용군 유격대의 항일투쟁을 그린 <八月的鄉村>은 전적인 한인제재소설은 아니지만 그속엔 조선 여성 安娜의 인물이 형상화되어 나온다. 蕭明이라는 漢族 유격대 지휘자가 조선인 여성 유격대원 安娜와의 사랑에 빠져 혁명과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安娜는 고심하다가 혁명의 길을 택하는 의연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戴平萬은 상해에서 좌익문예운동을 하다가 9·18 사변후 만주에 파견나가 지하공작을 한 바 있는데, 그의 <滿洲瑣記>에는 일제

의 탄압하에서 조선인 신분으로는 공장에 취직하지 못 하는 조선인 여성노동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하여 그녀는 결국 중국남방인으로 가장해서 취직하여 중국인 대우를 받으나 곧 발각되어 중국인 동료 여공과 탈출, 중국인민혁명유격대에 참가하여 국제주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식을 넘어선 계급의식으로 항일에 헌신할 것을 고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동북작가군에 있어서는 한인제재소설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국제의식도 항일에 있어서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반 한인들의 중국인들 속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리얼한 필치로 진솔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이들은 작품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예술적 수준에 있어 이미 상당히 원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전 단계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넷째, 무정부주의의 활동가들의 항일투쟁과 인간적 고뇌 등을 동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묘사하여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韓人題材小說로는 大家 巴金の <髮的故事>(1936.5.15)가 있고, 전문적인 한인제재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상해에서의 조선인 무정부주의자들의 지하활동과 조선인 일제앞잡이에 대한 테러를 담고 있는 소설로 <火> 第一部(1940.12.)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巴金은 2,30년대에 있어 확고한 무정부주의자로서 조선에서 망명해온 무정부주의자들과도 교류하고 있었다. 沈茹秋(沈龍海)·柳林(高自性)·柳絮(柳樹人)·柳子明·鄭華岩 등이 그들이다. <髮的故事>는 중국여성과 결혼했으나 그 여성이 고난속에서 죽게 되고, 자신은 일제와의 투쟁속에서 사선을 넘다가 백발이 되어 버린 조선 혁명가의 이야기에 대한 묘사를 통해 무정부주의적 조선인 혁명가에 대한 우정을 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火> 第一部는 전체적으로는 중국인들의 항일투쟁이 주

제이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부분적으로는 무정부주의적 조선인 혁명가들의 활동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들에 대한 동정과 연대를 표시하고 있다.

巴金은 중국현대문학사에 있어 몇 안 되는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대가의 작품속에 이들 한인제재소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관심가는 일이지만 이들을 그의 대표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髮的故事>는 짙막한 단편이지만 파금의 예술수완이 잘 드러나 있고, <火> 제1부도 항전문학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대개 동북작가군의 한인제재소설들과 유사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동북작가군의 많은 한인제재소설 발표와 함께 파금의 韓人題材小說이 한인제재소설군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중국의 한인제재소설은 이제 일정한 위치를 갖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다섯째, 후기낭만파 소설가로 한인제재소설을 많이 쓴 작가로 卜乃夫가 있다. 그의 작품중 <北極風情畫>(1944), <騎士的哀怨>(1947), <露西亞之戀>(1947), <伽倻>(1947), <狩>(1947), <奔流>(1947), <紅魔>(1947), <龍窟>(1947) 등은 전적으로 한인을 제재로 한 소설이다. <無名書> 6권중 제1권에 해당하는 장편 <野獸野獸野獸>(1944)와 제3권에 해당하는 <金色的蛇夜>上(1947)에는 부분적이지만 한인의 활동과 고뇌를 담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온다. 작가에 의하면 후자중에 순수하게 한인이 관련된 일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떼내어 단편소설화 시킬 수가 있는데, <野獸野獸野獸>는 세 군데가, <金色的蛇夜>는 두 군데가 가능하다고 한다.

卜乃夫는 無名氏로 더 잘 알려진 소설가로, 홍콩 입보(立報)의 기자이기도 했던 그는 1939년 겨울 이봉창열사가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이야기를 가지고 단편소설을 쓸 요량으로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를 찾아 김구 주석을 면담한다.이 소설은 결국 일본측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그는 김구선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외부세계에 알려 임시정부의 존재를 과시하기도하여 한국의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특히 당시 광복군 지도자였던 이범석과 친해져 광복군 上校계급을 받아 선전과장을 맡았고, 1941년말부터 1942년 전반기의 4개월 이상을 중경의 임시정부의 한 방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매일 4시간씩 청산리전투 등 이범석의 혁명사적과 40년간의 인생체험을 듣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듣고 체험한 일중 이범석이 마점산장군 부대를 따라 적색 러시아 톰스크에 피신해 있을 때의 같은 피압박민족인 폴란드 소녀와의 열렬하고도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이 바로 <北極風情畫>인 것이고, 또한 <野獸野獸野獸>와 <金色的蛇夜>상의 韓人 韓慕韓의 이야기에 이범석의 활동사적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기타 단편들 <露西亞之戀>은 마점산장군과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거쳐 철수할 때 베를린의 러시아 유랑인의 술집에서의 고국을 그리며 망국노 유랑한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騎士的哀怨>은 이범석의 말에 대한 사랑과 애마가 폐물화되는 이야기를, <奔流>는 이범석이 말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산사태가 나 불어난 강을 위험을 무릅쓰고 건넌 이야기를, <伽倻>와 <狩>는 길림인 金耀東으로 행세한 바 있는 이범석의 폭설내린 동북 대자연 속에서의 사냥 이야기를 반영하여 소설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장편중의 미완성 短片으로 부기되어 있는 <紅魔>는 한일합방시 한국황족과 일본 실력자들의 후안무치한 모임을 풍자하고,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李箕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李箕는 이범석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역시 미완성 短片으로 부기되어 있는 <龍窟>은 구대한제국군대 해산후의 애국군인인 김좌진등의 향거를 반영하고 있는 바, 상처입은 김좌진을 구출해 주는 李箕의 모습은 역시 이범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형상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작품은 주인공을 거의 다 이범석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범석이 한국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한 인물이고, 그의 활동사적과 정신풍모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현실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묘사하고 있다기보다는 낭만주의적인 창작방법을 택해 그려내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그 중요한 원인은 당시의 시대적 원인으로 인해 작가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 예컨대 러시아의 톰스크, 독일의 베를린, 북만주, 서울 등을 직접 답사하고 사적을 자세히 검증한 후에 쓴 것이 아니라 이범석의 이야기를 듣고 작가가 자신의 간접체험위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필력은 대단하여 <북극풍정화>의 경우 수없이 많은 독자를 흡인한 바 있다.

평가에 있어 북내부의 소설에 대해서처럼 혜애가 엇갈리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일부 한인 묘사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野獸野獸野獸>와 <金色的蛇夜>上을 포함하고 있는 <無名書>6권에 대해서는 ‘신문학 탄생 이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보는 평가가 있지만 문학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북극풍정화>에 대해서는 ‘유미문학의 발전에 있어 보기도문 성취를 이루었다’고 보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가 하면 ‘신기한 것을 표방하고 남과 다른 면모를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자극과 도취를 꾀하는 소설’로 ‘무슨 문학성취를 논할 것은 못된다’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근래 대륙학계의 엄가염이나 양의는 그들 저작중에서 많은 편폭을 할애하여 <북극풍정화>등 무명씨 작품의 장단점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아 그의 문학사적 위상을 과거에 비해 크게 격상시켜 놓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북내부가 한인제제소설을 많이 쓴 것에 대해, 항일혁명활

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랑의 비극이나 유랑한간의 향수의 식, 대자연속에서의 원시적 생명력 찬미 등을 테마로 하고 있어 항일의식이 강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제재가 이범석등 민족주의 우파계열의 활동과 투쟁에 국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창작방법이 낭만주의에 치우쳐 있어 역사의 리얼한 반영으로서의 가치를 확고히 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나 한인제재 소설의 대량 창작과 한인 영웅인물에 대한 묘사가 중국독자의 대한인 인식상 많은 긍정적 효과를 발했다는 측면이나 한인제재소설의 제재방면에 있어 확대를 꾀하고 다양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 중국의 한인제재소설은 다섯 개의 유파 내지 그룹 작가들의 창작을 통해 나타나면서 후기로 올수록 양적이나 질적으로 다양한 발전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초기 낭만파 성향의 郭沫若의 소설 <牧羊哀話>를 통해 현대적 맹아를 보여줬던 한인제재소설은 혁명파작가중 蔣光慈의 <鵬綠江上>을 통해 성장의 모습을 보이다가 동북작가군의 제작가들의 적극적인 창작을 통해 많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무정부주의 성향의 파금의 창작이 더해지고 나아가 40년대 중후반 후기낭만파로 칭해지는 卜乃夫의 대량 창작으로 인해 크게 대중화되기에 이른다.

둘째, 제재면에서 볼 때, 조선망국의 상황 속에서 은퇴한 귀족과 그 자제, 그리고 그들의 배일의식이나 배일활동을 제재로 해서 약간은 우연적인 느낌을 줬던 郭沫若이나 蔣光慈의 소설에서 東北作家群의 소설에 이르면 중국에, 대량으로 망명오거나 이주해온 한인들의 고난에 찬 다양한 삶의 실상을 제재로 함으로써 한층 더 현실감이 나고 리얼리즘적 반영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거기에 巴金에 이르러 상해를

무대로 활동하는 무정부주의적 한인 활동가들의 삶과 투쟁의 모습이 추가로 제재에 편입되고, 40년대 중후반의 卜乃夫에 이르러 민족주의 계열 한인 영웅의 삶과 사랑, 투쟁과 고뇌의 모습이 제재로 크게 추가됨으로써 제재는 다양성을 확보케 된다.

셋째, 주제면에서 볼 때, 낭만과 성향의 郭沫若의 <牧羊哀話>에서 보여주었던 한인을 빌어 배일의식을 표현하는 데서, 혁명문학과 蔣光慈의 <鴨綠江上>에서는 피압박민족간의 연대의식과 사회주의혁명을 들추어내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리얼한 현실에 바탕했다기보다는 목소리만 높인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동북작가군의 소설에 이르면 조선망국노가 떠돌며 당하는 고난과 설움에 대한 묘사에 바탕하여 진정으로 나라를 찾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민족의식의 틀을 넘어서 국제주의의 대의를 각성하고 뭉쳐 힘을 합해야 된다는 주제가 부각되게 된다. 예컨대 舒群의 <沒有祖國的孩子>와 戴平萬의 <滿洲瑣記>가 그러하고, 李輝英의 <萬寶山>, 駱賓基의 <邊陲線上>도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巴金에 이르면 무정부주의적 혁명가에 대한 동정과 연대를 표시하는 주제가 나타나고, 卜乃夫에 이르면 항일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도 있고, 대체로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韓人 항일혁명이 개인의 사랑과 향수, 원시적 생명력 등을 표현하고 있어 주제가 다양화된 느낌이다.

넷째,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술수법과 예술적 완성도이다. 초기의 郭沫若의 <牧羊哀話>는 일부 흡인력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작가도 지적한 바 있는 개념화된 묘사, 연극식 대화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습작 수준을 크게 넘기 어려운 데서, 蔣光慈의 <鴨綠江上>은 혁명적 낭만주의를 고집하는 등, '혁명문학과'의 일반적 단점을 크게 벗지 못했지만 예술수완이

일정정도 향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東北作家群의 작품들에 이르면 대체적으로 현실주의적 원칙에 따라 작품을 조직하고 묘사하는데 성취를 드러내므로써 예술적 기량이 크게 진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蕭軍의 <八月的鄉村>, 舒群의 <沒有祖國的孩子>, 駱賓基의 <邊陲線上>, <混沌> 등은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금의 한인제재소설은 단편이거나 장편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역시 대가다운 예술수완이 드러나고 있고, 복내부의 한인제재소설들은 나름대로 풍부한 표현력에 바탕하여 낭만주의적 창작수법을 한껏 동원하고 있어 묘사상의 사치스러움이나 어휘의 중첩 등의 단점을 넘어서면서 예술적인 독창성을 확보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방면 역시 다양한 발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四. 小說中에 나타난 中國속 韓人들의 文化的 處境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의 한인제재소설속에 한인들의 문화적 처경이 어떠한가를 살펴볼까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비추어 우선 한인제재 소설작품들의 무대와 한인들의 삶과 활동의 반영 상황에 따라 작품 분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일단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 (1) 한국이 무대이면서 韓人이 주인공인 작품 : <牧羊哀話>, <紅魔>, <龍窟> 등 3편
- (2) 중국이 무대이면서 韓人이 주인공인 작품 : <髮的故事>, <沒有祖國的孩子>, <滿洲瑣記>, <隣家>, <海的彼岸>, <騎士的哀怨>, <伽倻>, <狩>, <奔流> 등 9편

- (3) 중국이 무대이면서 韓人이 비교적 주요인물인 작품 : <萬寶山>, <古城裏的平常事件>, <夏夜>, <新計劃>, <莊戶人家的孩子> 등 5편
- (4) 중국이 무대이면서 韓人이 부차적 인물인 작품 : <八月的鄕村>, <火> 第1部, <邊疆線上>, <混沌>, <野獸野獸野獸>, <金色的蛇夜>上 등 6편
- (5) 다른 외국이나 몇 나라가 무대로 되어 있는 작품으로 韓人이 주인공인 작품 : <鴨綠江上>, <露西亞之戀>, <北極風情畫> 등 3편

이들 다섯 가지 작품 유형 중 華人들과의 관계속에서 삶을 살고 활동하는 韓人들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적지 않다. 즉 (1)유형의 세 작품중 1인칭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는 ‘我’가 나오는 <牧羊哀話>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작품은 순전히 한국의 구한말 ‘군대해산’과 ‘한일합방’을 배경으로 배일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을 테마로 하고 있는 바, 韓人과 日人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유형의 작품중 <騎士的哀怨> · <伽倻> · <狩> · <奔流> 등 4편은 비록 韓人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인간의 말에 대한 사랑과 교감의식을 표현하거나 동북 대자연 설원속에서의 수렵이나 불어난 강을 말과 함께 건너는 등 인간의 강인한 원시적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을 테마로 하고 있어 실제로 華人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활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5)유형의 작품중 <北極風情畫>는 제1인칭 관찰자 시점의 ‘我’가 韓人인 것을 제외하고는 華人是 따로 등장하지 않으며, <露西亞之戀>도 독일 베를린이 무대인 까닭에 따로 華人是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韓人이 등장하는 소설이라 해서 모두 다 華人과의 관계속에서의 삶과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작품속에 한인들의 문화적 處境이 포착되어 반영되기까지에

는 한인들의 중국 이주후 화인들과 대립, 갈등하거나 융화, 일치하는 등의 일정한 토착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실제로 한인들의 중국 이주나 망명 상황이 어떠했나를 알아보자. 1880년 봉금령 해제이후 우리 농민들이 만주에 개척 이민을 떠나기 시작한 이래 군대가 해산된 1907년에는 7만여명, 한일합방이 된 1910년에는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주에 이주하였고 1916년에는 20만 이상으로, 1921년에는 약 31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3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일제의 정책적인 추동으로 만주에 개척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1930년에는 약 63만명, 1937년에는 93만여명, 1939년에는 약 107만명,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에는 216만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간도 지방에 많이 거주했지만 점점 북단주, 남만주 등지로 퍼졌고, 나중에는 화북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이들은 만주 각 지방에 집성촌을 이루거나 흩어져 살면서 현지 중국인 지주들에 높은 소작료를 물거나, 혹은 일제에 착취, 탄압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적들에 재난을 입는 등 고난에 찬 삶을 살면서 항일민족운동, 특히 항일지하투쟁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후기에 가면 일본인들 세력을 배경으로 중국인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장물판매를 하기도 하고, 창녀로 전락되기도 하는 등 삶의 막판으로 몰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의 모습은 중국현대소설에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다.

중국현대소설 속에 있어 중국 경내에서의 한인들이 화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문화적 모습은 다기하다. 문화적인 대립과 갈등, 일면 협조와 일면 갈등, 융합과 일치 등의 상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며 漢語를 잘 구사하여 완전 융화하여

문화적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못 하는 경우

<八月的鄉村>의 安娜, <滿洲瑣記>의 佩佩, <野獸野獸野獸>
의 韓慕韓

2. 정치적 혹은 사회적 융화는 되었으나 민족적 언어적 차이로 문
화적 이질감이 남아 있는 경우

<萬寶山>의 金福父子, <邊陲線上>의 劉強에 대한 朝鮮紅黨,
<莊戶人家的孩子>의 寶利

3. 민족과 사회문화적 차이는 존재하나 중국인들과 별 다툼없이
평안히 지내는 경우

<混沌>에 나오는 남부여대하면서 조선에서 이민온 가난한
조선 농민들

4. 중국인과 거리감을 느끼거나 대립하는 경우

<混沌> 중의 중국소년들과 패싸움하는 迷嘉등 조선소년들,
<萬寶山>의 중국농민과 대립하는 조선농민들, <古城裏的平
常事件>의 중국부녀를 협박하여 사기치는 고려인, <夏夜>의
대고려와 소고려, <新計劃>의 金九東 金九如 형제

이들의 문화적 처境的 구체적 양상과 구체적 제측면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五. 結語

위에서 한인재재소설들의 시기별 유파적 분류를 바탕으로 유파별
발전추세와 문학적 성취 등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소설속에 등장하
는 한인들이 처한 문화적 상황에 대해 대체적인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먼저 현대문학 초기인 5·4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한인제재 중국현대소설은 혁명문학과, 동북작가군, 무정부주의, 후기낭만과 작가들의 손을 거치며 제재와 주제의식, 예술수법 등 제측면에서 다양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중국에의 망명이나 이주가 늘어날수록 중국현대소설에 반영된 한인형상이 늘어나고 다양해지며, 그에 반영된 문화적 처경도 복잡해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가 총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들 각 작가 작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하는 일이며, 범주를 당대로 확산시켜 보는 일일 것이다.

** (참조) 小說中에 나타난 韓人들의 政治的 性向과 活動 類型

중국 경내에서의 한인들의 항일민족운동을 시기별로 개관하자면 그 이합집산의 복잡성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어떤 운동에서든 노선 차이는 존재하게 마련이고, 이는 현실적 당위성에 바탕한 힘있는 몇 개의 노선으로 정리되어 가게 마련이다.

중국 경내의 항일독립운동의 복잡한 노선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화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 본다면,

1. 초창기 봉건주의계파 —— 대한제국회복파

2. 민족주의계열

(1)우익 — 임시정부 김구계열 중심의 한국독립당, 독립군, 광복군 등

(2)좌익 — 의열단 김원봉계열 중심의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등

3. 사회주의계열

(1)초기 — 이동휘 중심의 한인사회당과 조선공산당 중국지부 등

(2)후기1 —— 중국팔로군과 결합한 조선독립동맹

(3)후기2 —— 중국 동북항일연군 산하의 한인 항일유격대

4. 무정부주의계열 —— 유자명등 중심의 남화연맹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유사한 노선의 세력들과 연대하거나 교류, 또는 지원을 받으면서 항일민족운동을 펼쳤다.

이와 관련하여 韓人題材小說들에 등장하는 항일독립에의 지향을 지녔거나 운동에 투신한 韓人 형상과 그 반대로 일제에 부화하거나 매국적인 인물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배일의식을 지닌 귀족 지사 : <牧羊哀話>의 閔崇華, <鴨綠江

- 上>의 李孟漢의 부친과 雲姑의 부친, <紅魔>의 李箕부자, <龍窟>의 李箕부자
2. 항일적인 구대한제국 군인 : <紅魔>의 金左眞과 姜載河
 3. 항일의식 각성된 유랑 민중 : <鴨綠江上>의 李孟漢와 雲姑, <萬寶山>의 金福부자, <沒有祖國的孩子>의 果里,
 4. 민족주의 계열 독립군 : <北極風情畫>의 韓人 怪客, <露西亞之戀>의 金,
 5. 사회주의 계열 유격대 : <八月的鄉村>의 安娜, <滿洲瑣記>의 佩佩, <邊陲線上>의 朝鮮紅黨, <野獸野獸野獸>의 韓慕韓
 6. 무정부주의 계열 항일투사 : <髮的故事>의 金과 朴, <火> 第1部の 朝鮮인 투사들
 7. 고국을 그리워 하는 항일 망명자 : <伽倻>·<狩>의 金耀東
 8. 일제 앞잡이 혹 부화자 : <萬寶山>의 몇몇 일제에 부화하는 조선인들, <火> 第1部の 일제앞잡이, <混沌>의 ‘韓國通事’, <龍窟>의 매국적 황족들, 紅魔의 무정한 황족들